# "처음으로 사랑을 알게 해준 아내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 -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가장 최석진(가명)님의 이야기 -

최석진(가명)님은 어릴 적부터 간질을 앓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유년 시절부터 이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고 누구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자주 쓰러지는 자신을 살뜰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랑을 알게 해준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을에는 아기도 태어납니다.

행복이 계속될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세 식구 살아갈 보금자리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걱정! 직장을 다닐 수 없는 가정에게는 어느 하나 녹록한 게 없습니다.

아내의 환한 미소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가을에 태어날 아이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최성민님의 간절한 소원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최성님 가정의 생계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생계비와 자녀 양육비로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 ☎ 02-3396-1004